



“ 다시 시작합시다 ”

■ 요 21:15-22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급격한 변화들이 올 것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화적-기술적인 변화가 온다고 해도 언제나 신앙의 본질과 원리를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제자들이 보인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다시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헛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날이 샬 무렵 주님께서 그들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준비하신 식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과 대화의 통을 통해 제자들은 회복됐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왜 주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시는가?
 왜 갈릴리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답이 가능합니다.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이니 고향으로 부르셨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갈릴리의 연약한 백성들을 위로하러 가자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는 국경지대 변방에 위치하여 전쟁이 나면 먼저 초토화되는 지방이었고, 이방인들과의 교류로 인해 혼혈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방인처럼 멸시 당했습니다. 또는 ‘세계를 향한 눈을 뜨도록 촉구하시려는 뜻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해석되는 갈릴리는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신앙의 출발점, 곧 인생의 원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주님을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주님은 도망쳤던 제자들을 이 원점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시작했고, 모세는 80세에 다시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명 앞으로 담대히 뛰어들었습니다.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부르신 것은 새로운 사명을 향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원점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2. 다시 출발하는 사람의 자격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묻고 확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대화는 소위 베드로의 수위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는 지위를 부여 받은 이유가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한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를 ‘학문 없는 범인’(행 4:13)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확인하신 것은 사랑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섬김의 최고봉입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이론과 제도에 능숙하지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나 성도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간다는 점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새해의 출발선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의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3. 오직 믿음으로 사는 담대한 삶
 베드로는 새 출발한 후부터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교회를 주도하면서 부흥역사를 이끌었습니다. 매 맞고 투옥되는 일을 반복되었지만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박해에 정면으로 맞서며 ‘내 양을 치라’고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베드로는 AD 68년 네로의 폭정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고, 용기와 묵묵한 인내로 담대하게 자기 길을 갔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려움과 도전 앞에 위축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으십시오. 이제 새롭게 시작한 2022년은 이전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앙의 원점에서 서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한 마음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 곁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신년주일 예배를 기대와 소망 가운데 성찬식과 함께 드립니다.
 성찬식은 방역안전을 위해 예배실 입장하실 때에 성찬위원이 나누어 주는 개인용 성찬키트를 받아 의자 앞 받침대에 놓고 계시다가, 성찬식 때에 담임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교회학교는 이번 주에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기침, 발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때까지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1월 한달 찬양예배 시간에는 리더십특강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부서별 청지기훈련을 갖기 어려운 이때에, 다시 출발하는 서울교회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리더로 훈련받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0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102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p>우리의 비전 (vision)</p>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p>서울교회QR코드</p>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 · 강해경, 양재성 · 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 · 김희정, 우상식 · 김정욱(인도), 서광중 · 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 · 황경혜(말라위), 김영호 · 서향정(러시아), 허창범 · 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 · 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영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뿌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통로로 보여 주신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보충이시고 만유의 총체시다.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은 시간과 영원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선물로 주셨다. 과거의 죄는 지워 버리고 현재의 필요는 채워 주시고 미래는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우리 필요의 만유시요, 바라는 것의 만유시며,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것의 만유시다.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탁월함을 나타낸다. 세상에는 좋은 약은 많이 있지만 만병통치약이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 안전, 신성, 평화, 풍성, 아름다움, 치유, 도움, 위로, 정복, 생명, 승리, 영생이시다.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면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는 제국의 황제보다 부요한 자요, 그 분을 의심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해야 한다. 국가의 운명이 풍전동화 격이 되었다고 두려워 말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호자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우리의 만유이시니 그 분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웃입고 새사람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조국을 위해 기도하자.

-한국장로신문 2016년 3월 19일 발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양춘경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이계홍 장로
III 오후 2시	조동수 목사	조동수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엠피 5:8-9...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4(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93(새해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67(31)...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요 21:15-2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다시 시작합시다”... 손달익 목사
 성찬식 Holy Communion 집 레 자
 * 찬 송 Hymn347(382)...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조동수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34:8 인 도 자
 찬 송 210(245) 다 함 께
 기 도 홍창훈 집사
 찬 송 354(394) 다 함 께
 성 경 창 45:1-15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성숙한 인격과 리더십” ... 설 교 자
 * 찬 송 359(401)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장석남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박미혜 권사 II부: 장호림 권사
 성 경 행 13:13-4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내 뜻을 다 이루리라”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화2
 설 교 손달익, 안용곤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엠피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최낙기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요 21:15)	금주의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모 임

1. 공동의회 / 2일(주) 찬양예배 후에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모임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0.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1.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12. 신년감사 예배 / 우리 교회는 오늘 신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성찬예식을 거행합니다

장 례

- 故 이명화 목사(서울교회 파송 전광혜 선교사의 부군) / 12월 26일(주일) 별세, 28일(화) 발인
- 故 노송성 장로(14교구 이영옥 권사의 부군, 12교구 노애리 집사의 부친, 장윤기 집사의 장인, 5교구 노창훈 집사의 부친, 이화용 집사의 시부) / 12월 27일(월) 별세, 30일(목) 천국환송예배
- 故 조희성 성도(13교구 조서현 집사의 부친, 최진이 권사의 시부) / 12월 28일(화) 별세, 30일(목) 천국환송예배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비대면, 실시간 생중계
-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600명	672명	2,275명	391명	2,159명

희망의 창문을 열어라

희망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삶이란 불행의 연속이라 한다. 자기 욕망이 충족 되지 못할 때 오는 불만과 충족되었을 때 오는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기 때 문이라 한다. 이처럼 비관주의적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다. 수준 미달의 정치인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가진 자들, 늘어만 가는 외채, 비교육적 교육 현실, 정도를 이탈한 종교인들 모두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요 절망스런 것들 뿐이다.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고 살 만하며 희망이 있다는 것은 낙관적 생각을 갖고 보아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나라엔 오염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고 진리를 좋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좌절보다는 창문을 열고 희망의 빛을 보고 일어서야 할 때다.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기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